

No.20150916-001

제목: 달의 사막을 사박사박

저자: 기타무라 카오루(글), 오-나리 유코(일러스트)

페이지수: 173

장르: 소설

출간일: 2002년 06월 28일



<내용소개>

10살의 사키와 작가인 엄마가 주고받는 따뜻한 이야기.

항상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이어도,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일상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 아이들의 생각에 어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른이 되면서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된다. 돌아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다.

10살 사키는 작가인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잠에 들기 전에 엄마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엄마는 아이의 반응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즐겁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사키는 태풍 오는 날 창문을 열어두고 만다. 유리창은 부서지고 화분은 날아간다.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혼이 나고, 사키는 창문을 열어 둔 이유에 대해 '바람이 세계 불어서 집 안으로 바람을 들여 보내 가둬 두려고 했던 것' 이라고 설명한다. 때로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 할 수 없게 되어 혼을 내기도 하지만, 사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의 행동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어른들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 아이에게 억박지르는 건 안 된다는 것도 느끼고, 어리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보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섬세한 관찰력을 통해 표현해 내고 있다. 모녀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일상을 아이가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세세한 에피소드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이 책을 발간 할 때는 익명작가로서 책을 출판했지만 2년 후 책이 상을 받게 됨에 따라 저자의 얼굴이 알려지게 되었다. 아름답고 섬세한 문체와 엄마와 딸의 마음과 말, 그리고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남성작가가 쓴 소설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한 권이다. 최근 '하나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맨 '마타요시 나오키'가 일본 유명 프로그램 '아메토크'에서 소개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본문이미지>



<목차소개>

곰의 이름 / 잘못 들음 / 다베르만 / 무서운 이야기
전갈의 우물 / 매자나무 할머니 / 고등어 된장 조림 / 강의 수도꼭지
부드러운 솜사탕 / 알림장 /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 선행상의 리본
사키와 엄마

<저자소개>

키타무라 카오루(글)

1949 년 사이타마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침과 동시에 1989 년 익명작가으로써 하늘을 나는 말”로 데뷔했다. 1991 년 “밤의 매미”로 일본 추리 작가 협회상을 수상, 1993 년부터 집필에 전념한다. 독서가이자 본격 추리 팬으로써 평론, 앤솔로지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나리 유코(일러스트)

1965 년에 태어났다. 부드러운 그림과 글에 의한 ‘그림 책’을 만들고 있다.

No.20150916-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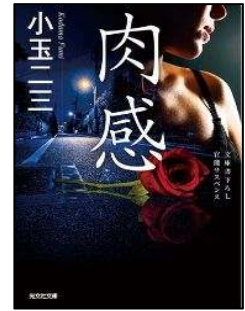
제목: 육감

저자: 코다마 후미

페이지수: 310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8월 06일



<내용소개>

**파산 하고 지방으로 온 남자와 스낵 바에서 일을 하는 여자와의 만남.
그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을 둘러싼 관능 서스펜스**

최근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관능 소설이 세계 모든 연령의 여성을 사로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성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100만 부 판매를 달성했고 세계적으로 총 3000만 부 이상이 판매 되었으며, 영화로도 만들어 질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관능 소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최근 관능 소설을 읽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옆 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여성이 관능소설에 빠져드는 이유는 만화와는 다르게 문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총 가동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두근거린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다. 또, 원래 관능소설이라고 하면 남성을 타겟으로 남성작가가 쓴 책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성작가가 쓴 관능소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시선으로 쓰인 관능 소설에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는 다르고, 남자는 시각으로, 여성은 뇌로 흥분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활자를 읽으면서 상상을 함으로써 공상을 넓힐 수 있는 관능 소설은 여성에게 딱 맞는 장르인 것이다.

도쿄에서 일을 하던 주인공인 토카노는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부인의 고향인 지방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된다. 그 곳에서 절임 음식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토카노는 어느 날, 스낵 바가 있는 골목을 가게 되고, 그 곳에서 화려한 가게 사이에 끼어 있는 허름한 가게에 들어가게 된다.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히나코란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뒤에 계속 그 가게에 드나들게 된다. 그렇게 히나코와 육체적인 관계까지 갖게 되는 토카노는 히나코에게서 가족에겐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된다. 결국 토카노는 히나코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나오지만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둘의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토카노가 의심받게 된다.

이 책은 여성 작가가 쓴 책으로, 관능소설에 서스펜스 적인 요소도 가미한 관능 서스펜스 소설이다. 관능적이고 섬세한 묘사에 살인 등 잔인한 요소가 더해져 한 층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1장: 웃는 여자

2장: 고통 받는 여자

3장: 죽은 여자

<저자소개>

코다마 후미

도쿄에서 태어났다. 2008 년 '특선 소설'지에 게재된 '여자의 별명'으로 데뷔했다.

No.20150916-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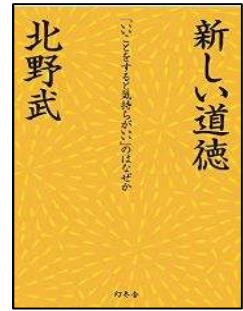
제목: 새로운 도덕

저자: 기타노 타케시

페이지수: 191

장르: 윤리학 / 도덕

출간일: 2015년 09월 10일



<내용소개>

도덕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

최근 TV나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어두워진 후에 외출을 하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것만 같고, 아는 사람도 믿어서는 안될 것 같고, 조금만 친절하게 다가오면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야 만다. 연일 도덕적이지 못한 뉴스와 기사가 넘쳐 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뉴스뿐 아니라 TV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에서도 개념이 없는 사람들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연신 등장하고, 쇼 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새로 출시되는 책과 영화에서도 충격적인 소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비도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도덕적인 모습들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 될 지도 모른다.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는 곳곳에 있어왔다. 비도덕적인 행위가 전혀 없던 시대는 과거에도 존재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보면 비도덕적인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기 시작 한 것은 20년정도 전이 된다.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도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 요즘 도덕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교육을 받아 올바른 도덕규범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저 '교과' 과목으로서 이론을 공부하며 지식을 머리에 넣고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데만 급급할 뿐이다. 또, 어린 아이는 습관처럼 도덕 규범을 듣고, 도덕적 행동이 습관화 됐을 뿐이다. 왜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파란 신호등일 때 건너야 하는지는 모르고 사회적 잔소리에 몸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도덕교육에 관한 문제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옆 나라 일본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초, 중학교의 정식 과목으로써 도덕을 채택 한다고 한다. 새롭게 과목으로 정식 채택됨에 있어서 저자는 과연 학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도덕은 변화한다. 하지만 교과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옛날 그대로의 도덕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재의 교육을 비판하고, 올바른 도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현재의 도덕을 이해하고 각각의 사람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타이틀은 일본의 도덕교육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도덕 교육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권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도덕은 지적을 많이 할 수 있다.
- 제 2장: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도 하지 않는다
- 제 3장: 원시인에게 도덕의 마음은 있었을까
- 제 4장: 도덕은 스스로 만든다
- 제 5장: 인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일까?

<저자소개>

키타노 타케시

1974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만담 콤비 '투피트'로 세대를 풍미한 후 솔로로써 TV, 라디오에 출연하는 외에도 영화와 출판업에서도 국민적인 인지를 얻고 있다. 또, 영화감독으로써도 1997 년에 'HA-NA-BI'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저서로 "초 사고", "전 사고", "얼간이의 구조" 등이 있다.

No.20150916-004

제목: 건강을 위해서는 살짝 새우등인 편이 좋다!

저자: 사토 아츠시

페이지수: 214

장르: 건강

출간일: 2015년 04월 28일



<내용소개>

어깨 결림이나 요통으로 딱딱해진 등뼈는,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부드러워 진다!
등뼈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강서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근무하는 사람들과 수험생들에게는 새우등이 생기기 쉽다. 새우등은 흉추부가 뒤쪽으로 심하게 돌출한 이상 자세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만, 요즘 같은 때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척추를 앞으로 굽히며 PC나 사무직 직업 종사자 및 노인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PC나 책상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허리가 뒤로 빠지고, 등골이 둥글어져 가슴을 펴는 일 없이 턱이 앞에 튀어나온 상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새우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새우등이 심해지면 등과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고, 피로가 쌓이게 되고 어깨근육이 딱딱해져 두통이 오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몸의 중심이 어긋나 몸의 다양한 부분에 부담이 일어나게 된다. 대사가 나빠지고, 림프액이나 혈관이 압박 받아 여러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등 뼈가 빠뚫어지면 골반에도 영향이 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새우등을 고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세 교정을 해 주는 병원이나 클리닉에 다니게 되고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른 자세' 즉 등을 바르게 쭉 펴고 있는 자세는 새우등을 고치는데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른 자세는 학교나 군대에서 사용되는 '차려 자세'와 같은 자세로, 오히려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는 자세라고 한다. 항상 의식을 하면서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근육, 몸 전체가 긴장을 하고 어깨와 허리가 부어 피곤이 더 쌓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 긴장이 계속 되는 것은 근육과 관절뿐 아니라 몸과 마음 여기 저기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허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는 '건강에는 안 좋은 자세'라는 것이다. 자세의 좋고 나쁨은 등 근육을 어떻게 피는 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로 있을 때 건강에 좋은가, 우리들이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로 정해지는 것이다. 좋은 자세로 있으려고 노력 하는 것 보다는 조금은 새우등이 되어도, 거북목이 되어도 몸에서 힘을 빼고 지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릴렉스한 상태에서 본문에 나오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뼈는 부드러워져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이미지 >

脱力するだけで姿勢

サロンに来院された患者さんの姿勢の変化を撮影しました。私の指



17 ※「バナナタイプ」の詳細は128ページを参照

はこんなに変わる!

導で脱力してもらっただけで、一瞬でお腹がへこんだお二人です。



16

※4※ 習慣化すれば超健康に! 「コンニャク背骨」エクササイズ



※このエクササイズで腰に痛みを感じたら、普段も反り腰で、腰に力が入っている証
だ。無理に高く上げようとせず、背中の力で上げられる範囲まででかまいません。

161

※4※ 習慣化すれば超健康に! 「コンニャク背骨」エクササイズ



169



160



168

<목차소개>

제 1장: 자세에 대해 틀린 상식을 바르게 잡읍시다

(긴장하니까 근육이 딱딱해 진다 / 등을 펴고 가슴을 피니까 어깨 결림과 요통이 된다 / 턱을 당겨서는 안 된다 / '차려'는 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등)

제 2장: 힘을 빼는 것 만으로 누구라도 '바른 자세'가 될 수 있다!

('살짝 새우등'이 좋다 / 정말 바른 자세는 앞 뒤의 밸런스가 5:5 / 좀처럼 힘을 뺄 수 없는 3가지 이유 / 발뒤꿈치가 아픈 사람은 골반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 등)

제 3장: 당신의 등뼈는 부드럽게 움직입니까?

(등뼈는 하나 하나 움직일 수 있다 / 근육이 딱딱하니까 등뼈가 딱딱하다? / 어떤 타입이어도 '힘을 빼는 것'으로 자세가 바뀐다 / 스트레스와 내장 건강에도 효과적 등)

제 4장: 습관화 하면 매우 건강하게! '곤약 새우등' 운동

(딱딱해진 새우등을 부드럽게 하는 특별한 운동 / 복근운동과는 다른 '배꼽 보기 운동' / 약간이라도 성공한다면 ' 좋음' 순간적으로 몸이 바뀐다 등)

제 5장: '살짝 새우등'이 되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뀐다!

('살짝 새우등'이 되어 몸을 쾌적하게 해 주자 / 요통 / 두통 / 불면 / 안티에이징 등)

<저자소개>

사토 아츠시

1977년에 태어나 2000년 일본 대학 이공학부 해양건축 공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치료원에서 스포츠 트레이너로써 일을 했다.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도 시술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술자의 길로 들어섰다. 정체 요법, 척추 지압 요법을 7년 반동안 배우고, 데일리 에코케어 스테이션을 개업했다. 건축에서 배운 구조역학을 척추 지압 요법에 도입하여 인체를 분석하는 자세역학의 스페셜리스트로써 어깨 결림, 요통에 고민이 많은 사람의 구제에 힘쓰고 있다. 현재 데일리 에코 케어 스테이션의 대표이다.

No.20150916-005

제목: 교양은 '백과사전'으로 갈고 닦아라

저자: 나루케 마코토

페이지수: 174

장르: 인문

출간일: 2015년 08월 18일



<내용소개>

교양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사전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모르는 것이 생겼을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로 찾고 싶은 것을 검색만 하면 금방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 검색 엔진이라고 불리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검색 엔진은 매우 편리한 존재이다. 적절한 키워드만 입력 하면 떠오르지 않던 고유 명사나, 애매한 기억만 가지고 있던 역사상의 사건, 어제 본 TV 방송 타이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로 보여준다.

검색 엔진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은 '구글 선생님' 이나 '구글링' 등의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덕분에 종이로 된 사전은 모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이로 된 사전은 두껍고 무거워서 찾으려고 꺼내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엔진 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것이 백과 사전이다. 구글은 물어 본 것, 물어 본 것에 관련이 있을 법한 것만 알려준다. 하지만 백과 사전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과 발음이 같은 동음이의어도 알아 보는 김에 함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찾던 것과 동시에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들도 알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찾다가 보면 내가 원하던 지식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 교양까지 읽게 되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백과사전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이며 구조화되고 신뢰성이 높고 정리된 정보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각 지식단위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최고의 교양서인 '사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사전과 백과사전, 도감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현재의 전자기기를 통한 검색엔진과 종이로 된 사전의 차이를 서술한다. 그리고 사전의 좋은 점들을 예를 들어가며 풀어내고 있다. 또, 각 상황 별로 나누어진 사전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음식들만 실려 있는 백과사전, 인테리어를 위한 사전 등 자세한 소개와 함께 한 곳에 모아두고 있다. 저자는 많은 사전을 읽어 왔지만, 사전들을 정리해둔 사전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저자의 사전에 대한 애정을 가득 느낄 수 있는 한 권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최고의 교양서는 '사전'이다

(사전은 읽는 것이다 / 구글 선생은 힘이 부족하다 / 위키피디아는 잘못 되었다 / 모르는 분야야 말로 사전을 읽어야 한다 / 사전을 보내는 사람이 되자 등)

제 2장: 재미있는 사전, 백과사전, 도감

(읽기 위한 사전 / 인용하기 위한 사전 / 쓰기 위한 사전 / 심오한 사전 / 장식할 수 있는 사전 / 즐기기 위한 사전 / 맛있는 사전 등)

제 3장: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 책의 표지에 나무 껍질을 사용 / 어떤 장르에도 반드시 독자는 있다. / 구상하고 몇 년이 걸리는 것이 당연)

<저자소개>

나루케 마코토

1955년에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추오대학 상학부를 졸업했다. 자동차 부품메이커, 주식회사 아스키등을 거쳐 1986년 마이크로 소프트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1991년 마이크로 소프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2000년에 퇴사를 한 후, 투자 컨설팅 회사 '인스파이어'를 설립했다. 현재 스루가 은행 사외 이사, 서평 사이트 'HONZ'대표도 맡고 있다.

No.20150916-006

제목: "수학에 강한 과장"이 되기 위한 일의 요령

저자: 후쿠사와 신타로

페이지수: 224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5년 06월 12일



<내용소개>

“산수”를 제압하는 자가 “비즈니스”를 제압한다!

숫자와는 땀해야 땀 수 없는 관리직을 위해 비즈니스 수학의 일인자가 알려주는 “숫자에 강한” 사람이 되는 사고법

관리직의 경우, 유독 수학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업무 상의 수학을 잘하는 사람 =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시절에 이와 과목에 취미가 없던 사람들은 수학에 자신이 없어져 담을 쌓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런데 “업무 상의 수학”을 주제로 한 기업연수에서 4천명 이상의 비즈니스 인재를 지도해 온 저자는 “사실상 업무 상 다루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 산수레벨의 계산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수학에 취미가 없는 과장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바라 보는 “각도”와 “사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또 그림을 그려보며 때로는 대화형식으로 최대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해설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수학을 잘하는 과장”이란 “계산레벨의 지식을 일에 활용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저자는 단언컨대 “수학을 잘하는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공식이나 고도의 이론을 외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다만 단순 계산이 되는 정도의 지식을 이용한 사용은 필수라고 말한다. 더불어 “수학”능력이 아닌 “산수”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수학”과 “산수”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각각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착실히 살아가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산수”라면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하여 구조나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수학”이다. “수학은 풀었지만 산수에는 소질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조를 파악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즐기지만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과장”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학”이 아닌 “산수”를 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사고를 정리하는 데에 있어 “그림”보다 “표”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이는 표가 “공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공란을 메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이는 “표”라는 매개체에게 자신도 모르게 “정리”나 “메움”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컨설턴트가 그래프나 표를 잘 사용하는 이유는 깊이 고민하고 혼란에

빠진 클라이언트의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하여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일깨워주는 일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컨설턴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이다. 상사와 부하 사이의 일은 바로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야 한다. 어떤 것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부하에게 전달해주는 상사는 분명 부하직원들에게 스마트한 상사로서 비취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팀으로서 능률이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팀 내에서 신뢰 받는 상사이자 부하직원이 될 수 있는 힌트가 숨어있는 타이틀이다.

<목차소개>

머리말

제1장 "업무의 손실"은 숫자로 보면 일목요연!

(숫자를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생각하자 / 일의 "효율화"는 계산을 토대로 실행하라! / 납기연장의 위기는 숫자로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다 / "수치화"하면 시간의 손실이 보인다 등)

제2장 숫자를 사용하면 "매니지먼트"는 이렇게까지 변한다!

(부하는 숫자를 잘 사용하는 과장을 신뢰한다 / "10"이라는 숫자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하게 하자 / 숫자에 강한 과장은 "그림"이 아닌 "표"로 정리한다 등)

제3장 숫자에 강한 과장의 "사내정치술"

(당신의 마이너스 평가는 숫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뒤집힌다 / "문제해결"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첫 걸음 / 비즈니스 전략은 "덧셈"으로 말하라! 등)

제4장 숫자를 당신의 "최대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숫자를 제압하는 자가 승부처로 결과를 낸다 / 숫자에 강한 과장은 "합리적"으로 출세한다 / "이익률이 높은 상품은 돈벌이가 된다"라는 게 정말인가? 등)

제5장 세상에 모든 과장들에게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은 3가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 산수 교과서 안에 있다 / 과장에게 필요한 균형감각은 "숫자"가 알려준다 /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현실"도 달라진다 등)

후기

<저자소개>

후쿠사와 신타로

수학에 뛰어난 비즈니스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가이다. 수학 학원 강사에서 패션업계로 전직한 뒤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판매, 영업, 마케팅, 매니지먼트 등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계산 능력이 비즈니스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비즈니스 인재들에게 "정말로 일에 도움이 되는 수학능력"을 널리 퍼뜨리려는 일념 하에 독립을 선언한다. 현재는 그의 이색적인 경험을 살린 연구내용으로 다양한 업계의 기업으로부터 연구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도한 인원수는 약 4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분야에서는 일인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친숙한 캐릭터로 호평을 받으며 신문이나 잡지 등 미디어에도

자주 출연한다. 또 기업연수와 동시에 대학에서 수학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No.20150916-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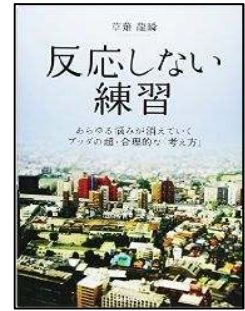
제목: 반응을 하지 않는 연습

저자: 쿠사나기 류순

페이지수: 224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7월 31일



<내용소개>

원시적 불교 이론을 통해 배우는 현대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방식.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 인생은 편한 것만이 아니라고 실감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매 순간 크고 작은 고민들로 고통스러워 하고 이 고민에서 어떻게 빠져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차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 생활에 쫓겨 마음에 여유가 없고,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아서, 싫은 것, 운이 없는 것, 계속 된 실패, 성격이 맞지 않는 상대가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고민을 해결 할 수 없어서 즐겁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저자는 한가지 심플한 제안을 한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반응"에서 시작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침의 지옥철 안에서 "오늘도 사람이 많구나" 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이라면 그 것은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반응인 것이다. 마음의 없는 상대의 태도에 화가 나는 것도 화를 낳는 반응 인 것이고, 중요한 상황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도 불안과 긴장을 낳는 반응인 것이다. 그 반응의 결과로써 일상에서 화를 내거나 풀이 죽거나 불안과 압박감에 실패를 하는 등의 "고민"이 생겨나는 것이다. 즉, 모든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데없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동요 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불안감도 느낄 수 없게 되어 인생을 편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주의 할 점은 반응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리해서 참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늘리지 않도록 쓸데 없는 반응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알려 준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부처의 가르침이란 '마음의 쓸데없는 반응을 막는 것으로 모든 고민,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다. 마음의 반응을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저자는 쓸데없이 반응하지 않고, 고민을 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다. 종교적인 내용 보다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인생에 평안, 만족, 행복을 가져다 줄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어떤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심플한 "사고방식"이 있다

제 1장: 반응하기 전에 '일단 이해해라'

(고민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이해'해라 / 그 문제의 '이유'에 착목 해라 / 마음의 상태를 '바로 보는 것'만으로 등)

제 2장: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만(慢)"이라는 마음의 병을 조심해라 / '무심코 판단하기'에서 졸업 / '자신을 부정 하지 않는다'. 어떤 때라도 등)

제 3장: 마이너스 감정으로 '손해 보지 않는다'

(감정을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 곤란한 상대와 '어떻게 관계 할 것인가' / 큰 원칙- "쾌"를 중요하게 여겨도 좋다 등)

제 4장: 타인의 눈으로 본 '자유롭게 된다'

(타인의 평가를 '뒤쫓지 않는다' / 귀찮은 상대와 '거리를 두자' /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집중! 등)

제 5장: '바르게' 경쟁하라

(그 경쟁은 '망상'일지도 모른다 / 경쟁하기 전에 '준비'를 하자 / '바른 동기'를 준비해라 등)

최종장: 생각하는 '기준'을 갖자

(바른 마음으로 '돌아가라'. 몇 번이든 / 언제라도 "바른 방향"을 잊지 않는다 /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자' 등)

<저자소개>

쿠사나기 류순

승려, 고토의 마을 대표이다. 1969 년 나라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중퇴한 후 16 세에 출가, 상경했다. 방랑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정책 싱크탱크 등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 탐구해, 인도 불교 지도승인 사사이 슈레이 밑에서 득도출가했다. 미얀마 국립 불교대학, 타이의 절로 유학을 했다. 현재 인도에서 불교도와 함께 사회 개선 NGO 와 유치원을 운영하고, 일본에서는 종파에 소속하지 않고 실용적인 불교의 '본질'을, 일이나 인간관계, 생활방식 전반에 걸쳐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No.20150916-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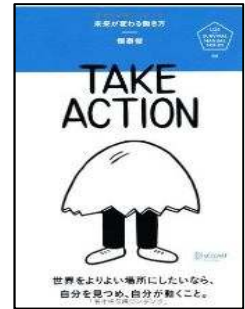
제목: 미래가 변하는 일하는 법

저자: 신태준

페이지수: 217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3년 02월 16일



<내용소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 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비즈니스 실용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자신이 '잘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흔히들 성공하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현재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도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의 빈곤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을 NPO로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하고 있던 직업은 버린 것은 아니었다. 평일 낮에는 투자펀드가로 일을 하고, 평일 밤과 주말에는 NPO활동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다. 원래 하던 일을 베이스로 깔고 파트타임으로써 다른 활동을 하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갖게 된 것이다. 자신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지금 있는 환경, 지금 보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바꾸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 소개를 하고 있다. 먼저 준비로써 저자 자신이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 소개를 겸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일을 하면서 NPO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원래의 직업과 파트 타임 두 개의 원안에서 일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실전으로 파트 타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함께 움직여 줄 동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파트타임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 자신을 바꾸고 싶은 사람,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한 권이다.

<목차소개>

PART 1. 준비 편

(본업과 파트타임의 두 바퀴로 일해라 / 액션을 생각해라 / 액션을 선택해라 등)

PART 2. 실전 편

(파트 타임 조직에서 액션을 취한다 / 시간을 만든다 / 동료로 만든다 / 조직을 만든다 등)

미래에 보내는 전언

영향을 받은 추천하는 책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젝트

멤버가 액션을 하는 이유

일단 시작하자

SURVIVAL MANUAL

<저자소개>

신태준

1981 년 도쿄에서 태어나 조선 대학교 정치 경제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 대학원 파이낸스 연구과를 수료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을 거쳐 현재는 바이아웃 펀드 투자 프로페셔널로서 다양한 사업의 분석, 투자실행, 투자처의 경영에 관여한다. 일 밖에 2007 년 NPO Living in Peace 를 설립,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빈곤층의 금융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 첫 '마이크로 파이낸스 빈곤 소멸 투자 펀드'를 기획했다. 일본에서는 아동양호 시설용 기부 프로그램 '찬스 메이커'를 실시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캐리어 섹션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인 Global Shapers, 아시아 학회의 Asia Young Leaders, St. gallen 심포지움의 Leaders of Tomorrow 에 선출 되었다.

No.20150916-009

제목: 크레파스 매직

저자: 후나자키 요시히코(글), 데쿠네 이쿠(그림)

페이지수: 59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3년 09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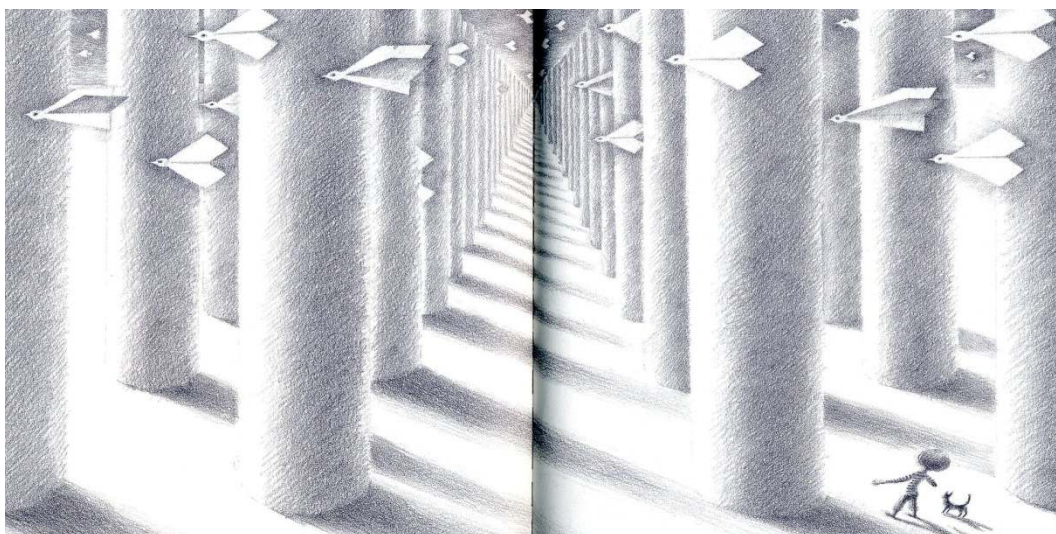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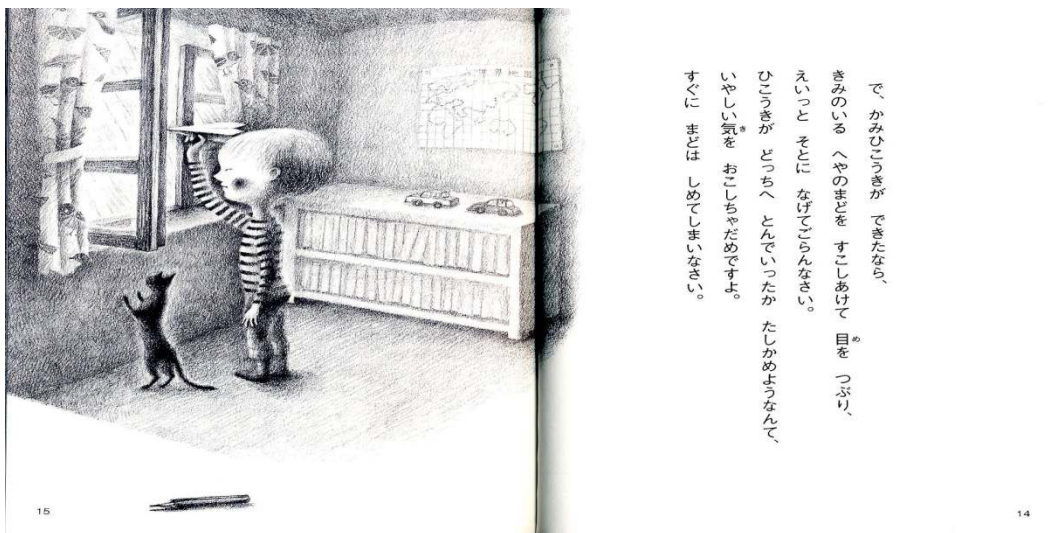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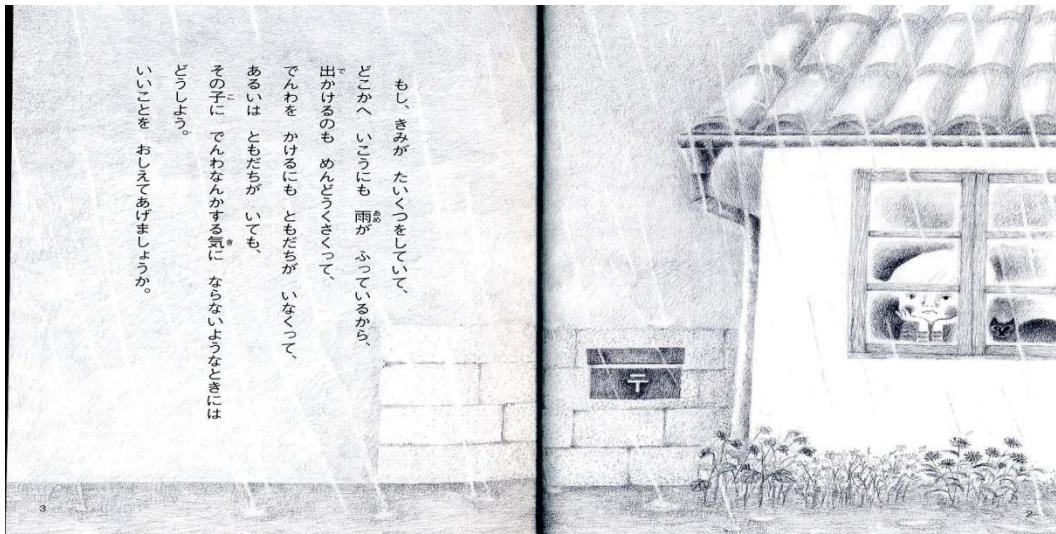
<내용소개>

비 오는 날, 집에서 크레파스와 종이와 함께 놀아 봅시다

심심한 날,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날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이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해 보면 즐거운 일이 벌어진다고 놀이를 제안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종이와 가위, 그리고 연필입니다. 종이 안에 주문을 쓰고, 종이비행기를 접습니다. 종이비행기를 접어 창 밖으로 날리고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후, 우체통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엄마가 꺼내기 전에 먼저 꺼내야 하니 우체통으로 힘껏 달려 가야 합니다. 우체통 안에는 크레파스가 들어있습니다. 크레파스를 방안에 넣고 문을 닫고 10을 셉니다. 숫자를 다 션으면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면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던 방이 엄청 넓은 큰 방이 되었고, 양 옆으로는 큰 기둥이 세워져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가 보니 파란색 크레파스가 울고 있었습니다. 파란 색이 싫다고 우는 파란 크레파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뒤에서 빨간 크레파스가 하하하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많은 크레파스들이 나왔습니다. 크레파스들은 자신의 색이 맘에 안 들어 크레파스나라의 법에 따라 주인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던 아이는 좋은 방법이 생각나 크레파스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당황해 가만히 있던 크레파스들이 새로운 색이 되는 것을 보고 너도나도 바닥에 자신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세시간에 걸쳐 마지막 크레파스까지 다 칠했습니다. 다 칠하고 보니 앞에 보이는 것은 검정 색뿐이었습니다. 그 검정색은 그림자가 되어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나가서 친구들과 못 노는 아이에게 읽어주면 좋을 책 입니다. 책에 나오는 아이를 따라서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어 버릴 지도 모릅니다. 종이 비행기를 못 접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 안에 종이 비행기를 접는 방법도 제시 되어 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크레파스로 칠해 색과 색이 만나 다른 색이 되는 발견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색을 만들어 보는 것을 통해 색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색을 만들어 봐 주세요.

< 본문 이미지 >





<저자소개>

후나사키 요시히코(글)

도쿄에서 태어나 가쿠슈인 대학을 졸업, 시나유리 대학 교수이다. “비 내리는 동물원”으로 국제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일본의 신화’시리즈 등 다수 있다.

데쿠네 이쿠(그림)

도쿄에서 태어나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졸업 했다. “마살과 하얀 새”로 일본 그림책 대상을 수상했다.

No.20150916-010

제목: 멸치 구름을 잡아라

저자: 카키우치 이소코(글) / 이치이 미카(그림)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07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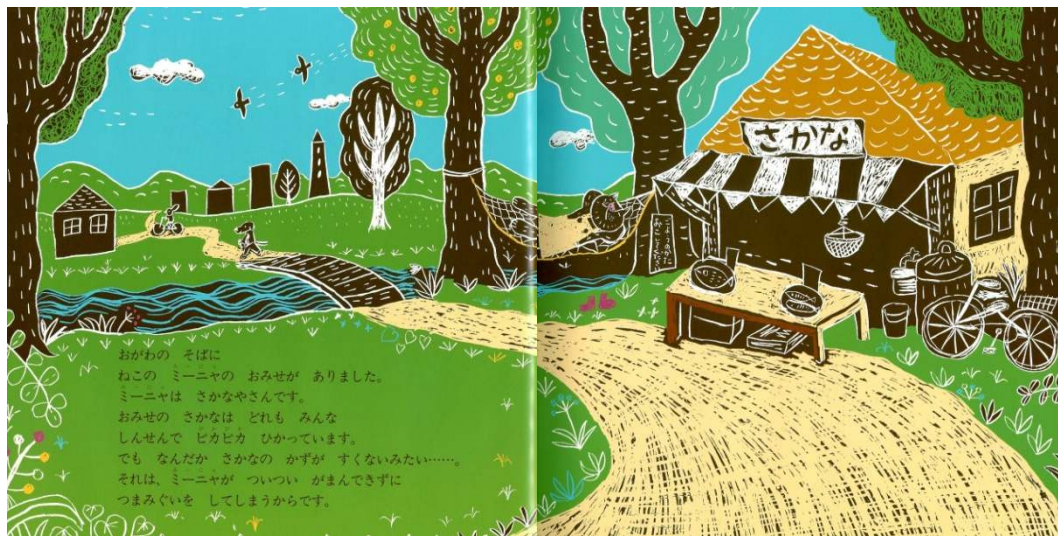
<내용소개>

하늘위로 떠나간 멸치들을 대신할 것은?

마을에 있는 생선가게 주인은 고양이인 미냐 입니다. 미냐의 생선가게에는 맛있는 생선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선가게 주인인 미냐가 하나씩 집어먹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선은 대량의 멸치입니다. 가판대에 얼음이 담긴 상자를 놓고, 그 위에 멸치들을 늘어놨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생선가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멸치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고 맙니다. 결국 멸치들은 파란 하늘에 떠있는 멸치구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냐는 울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지나가던 참새가 미냐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참새는 하늘 위의 멸치구름을 향해 날아가지만, 하늘은 너무나 넓고 멀어서 작은 참새는 구름이 있는 곳까진 가지 못합니다. 다음엔 키가 큰 기린인 키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큰 소리로 키리를 부르자 숲 속에서 목을 쭉 내밀고 미냐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미냐의 부탁에 키리는 높은 사다리 제일 위에 올라가 그물망으로 멸치 구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사다리가 부러져 키리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멸치 구름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나뭇잎들을 모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나뭇잎들이 물고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먹으면 잎 맛이 나는 초록색 물고기들은 가게의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조리법을 물어보는 손님에게 미냐는 샐러드로 해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와서 고양이 미냐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선이 구름으로도 변신하고, 나뭇잎이 생선으로 변신하는 장면에서는 또 어떤 물건이 생선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어 창의력도 발달 될 것입니다. 화려하고 밝은 색의 그림책으로 아이의 시선도 빼앗을 수 있는 한 권입니다. 다 읽고 밖으로 나가 멸치구름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 본문이미지 >





<저자소개>

카키우치 이소코

도쿄에서 태어났다. 시집 “슬플 때에는”, “오후의 빛”, 그림책으로 “잠들어 버린 산타클로스”, 번역서 “내가 아냐!”, 읽을 거리로 “해질녘 나라에 어서 오세요”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이치이 미카

효고에서 태어났다. 그림책 작품으로 “애벌레 회의”, “굉장하죠”, ‘아기돼지 불탄’ 시리즈, 삽화 작품으로 “까마귀와 하마의 해수욕” 등 다수 있다.